

미·유럽·일본 특허청 자동번역기로 특허정보 공유

미국·유럽·일본의 특허청이 타국에서 출원된 '국제특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번역기를 활용해 특허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각국 특허청은 동일한 자동번역기를 도입, 중복 출원된 동일 발명에 대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특허의 출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침은 향후 미국·유럽·일본 간의 특허 심사 기준 통일을 위한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해외에서의 특허는 각국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것이 필요하며 여기서 중복 출원된 동일 발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먼저 출원된 것인지 조사한다.

국제특허 출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40% 이상이 해외로부터의 출원이다. 실제로 미국 특허청에 신청되는 일본으로부터의 출원이 연간 6만건이며 유럽에서도 약 1만9천건에 달하고 있다.

일본 스미토모은행 첫 지적재산 신탁 출시

일본 스미토모 신탁은행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대상으로 한 일본 최초의 지적재산신탁을 출시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스미토모신탁은 내년 초 아티스트하우스 등 영화배급사와 계약, 영화 콘텐츠의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화사는 영상 자산을 조기에 자금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적재산신탁은 또한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도 연결된다.

스미토모신탁의 지적재산신탁 출시는 일본이 이달 내 개정 신탁법을 도입키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니혼게이지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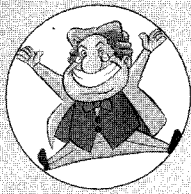
사라니, 그럼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다. 군납업자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므로 그는 더욱 불안해졌다. 며칠이 지나가 그의 불길한 예감대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이라는 통지가 왔다. 그 이유는 천막 천의 염색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었다. 군납업자의 말만 믿고 녹색이어야 할 것을 파란색으로 염색했던 것이다. 창고에 가득 쌓인 파란 천막 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트라우스는 눈앞이 캄캄했다. 직원을 월급이며, 엄청난 빚은 또 어떻게 할지 막막했다.

스트라우스는 산더미처럼 쌓인 파란 천막 천을 헐값에 내놓았으나 아무도 사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화려한 색의 천막 천만을 원했다. 실망한 스트라우스는 공장 문을 아예 닫고 술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던 어느날, 스트라우스는 어느 때처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한 광부가 속옷차림으로 앉아 양복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광부의 옷은 더 이상 기울 곳이 없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거친 일을 하는 광부와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질기고 특수한 작업복이 필요할 텐데...' 그는 문든 자신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천막 천을 떠올렸다. 그 천막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 광부들에게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옷? 그래, 저 가난한 광부들에게는 그런 옷이 필요하지. 만약 내 천막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 입는다면 속옷차림으로 앉아 바지를 걷는 일은 없을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스트라우스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튼튼한 천막 천으로 디자인한 새로운 작업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우연히 눈에 띄인, 가난한 광부의 을씨년스런 모습에서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옷, 청바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얼마 뒤, 파란 천막 천은 간편하고 튼튼한 작업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곧이어 대단한 인기를 얻으며 팔려나갔다. 입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작업복을 높이 평가했다. 스트라우스는 이 작업복을 블루진이라 이름 붙였다.

왕연중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관리지원팀장.
'발명교실' 등 발명도서 92권 집필,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수상,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과기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산업포장 등 수상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출원·특허등록 하는 방법 ②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김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